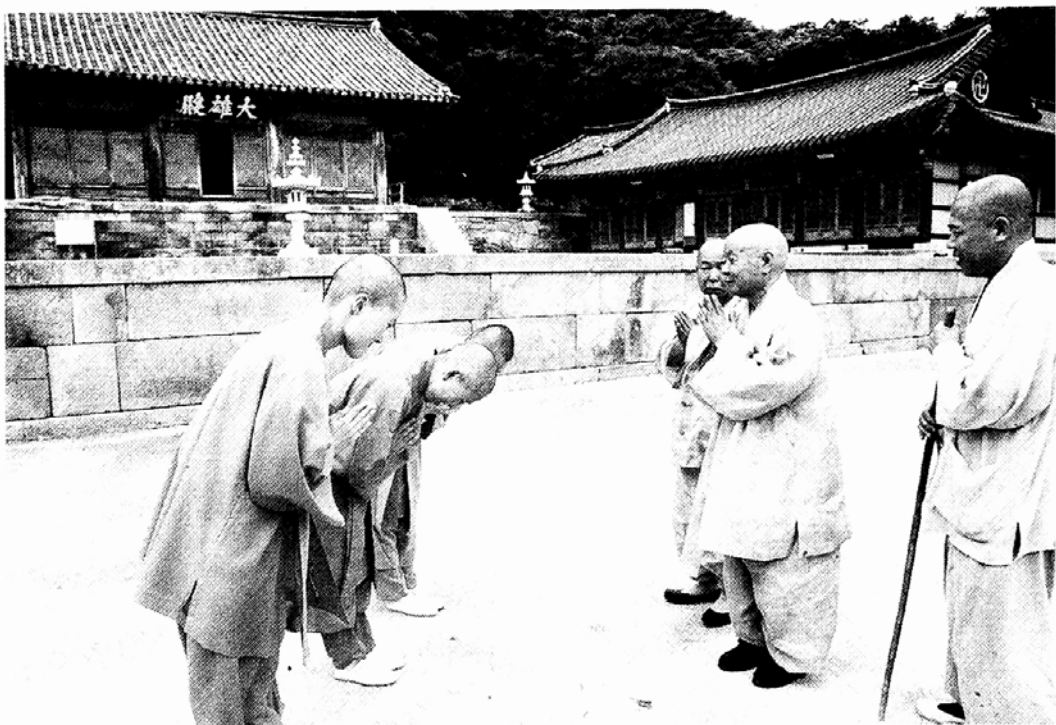


# 원담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 가까이서 뵈 큰스님

# “자기 육신이 선방임을 알자”



원담스님은 오전 10시와 저녁공양 전후 하루 3번 포항시내. 포항길에서 만난 행자들에게 자상한 가르침을 주시는 원담스님.

### 자신 믿고 참나 찾기

### 부처님 닮아가는

### 가장 빠른 방편

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 내렸다. 스님은 이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렇게 친근하고 격의 없는 웃음으로 먼저 맞이한다.

시자 법보 스님은 “공부를 가르칠 때는 굉장히 엄하지만 이곳을 찾는 사부대중 누구에게나 항상 밝은 웃음으로 맞이하시는 분이 방장스님”이라며 “그래서 열화실에서는 늘 웃음이 그칠 날이 없을 정도”라고 귀띔한다. 법보 스님이 들려주는 일화 한 토막. 스님과 24시간을 함께하는 시자 스님은 자주 풀밭을 밟는다고 한다. 경전을 보고 있다가 꾸벅 꾸벅 졸면 어느 새 스님이 다가와 “이놈아, 무슨 망상을 그렇게 하느냐”고 꿀밤을 주시며 손자를 깨우는 할아버지처럼 장난을 거신다. 시자 로서는

부장 스님이 까마득히 높고 어렵지만 원담 스님은 이러한 장난스러운 행으로 무언의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 이렇게 스님은 결림이 없이 시자 스님에게 장난을 걸고, 또한 시자들의 장난을 받아 주며 늘 격의 없이 지내신다. 주위에서 원담 스님을 ‘천진불(天真佛)’이라고 칭하는 까닭도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하고 환한 웃음과 따뜻한 정 그리고 격의없고 자상하신 배품 때문이다. 그러나 수행을 지도할 때는 엄격하다. “공부할 때는 ‘극악극독심(極惡極毒心)’을 내야 한다. 그래야 8만4천의 번뇌마를 부술 수 있다”며 원담 스님은 흑독하게 다그치신다.

원담 스님은 젊은 시절 무섭게 정진하신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별명이 ‘말뚝 수좌’, ‘잠도 못자고 공양도 제대로 못해 물가누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과 죽음을 끊는다(生死斷)’는 공부가 가능한지를 시험해 본다면 무섭게 정진했다. 이 용맹정진을 통해 스님은 참선을 부지런히 하여 통달하면 삶과 죽음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생사를 뚫는 참선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으신다는 스님은, 먼저 믿음

부터 강조한다. “믿음은 부처를 찾아가는 발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교회에서 신을 믿는 것처럼 부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믿어 ‘참나’를 찾는 것이다. 참나는 보고 들어서 얻는 지식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니 나라는 생각만 해도 그것은 벌써 내가 아니라며 “나를 찾는 그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12살 때 속가 이모인 경선암 도명 스님을 따라 왔다가 만공 스님을 친견하고 환희심이 생겨 출가했다는 스님에게 만공스님과 생활할 때의 이야기를 청했다.

“만공 스님을 전월사에서 시봉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이 천장사에서 행자생활을 할 때였어요. 어느 날 한 스님이 큰 스님을 찾아와 법가랑을 하는 데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더군요. 부엌에서 일을 하다 이 소리를 듣고 방문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지요. 만공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 한 중이 조주 화상에게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럼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지는 묻지 않겠나.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그 하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 오도승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 원진국사 ‘永香’

고려중엽 능엄선(楞嚴禪)을 주장하며 혜성처럼 나타난 선사가 원진국사(圓眞國師)다. 포항 보경사 증창조인 국사는 우리 나라 최초로 떡차(茶) : 차, 잎을 문쳐 벽돌 모양으로 만든 것을 만들어 보급하기도 했다. 속승은 신(申)이며 이름은 승형(承洵), 자는 영희(永暉), 법호는 원진(圓眞)이다.

고려 명종 원년(1171) 상락군 산양현(지금의 문경)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숙부 밑에서 자라다가 일곱 살에 청도 운문사 연선 선사에게 출가하였고, 문경 봉암사 동순 선사에게 수참(修參)하여 전법하였다.

어느 날, 국사께서 선실에서 가부좌를 틀고 삼매에 들어 있을 때, 조실 스님이 죽비로 국사의 어깨를 치면서 큰 소리로 말씀하였다.

“사람이 다리 위로 지나가니(從水上過), 다리는 흐르는데 물은 흐르지 않

불성이요, 한화의 빈 몸이 곧 법신이란 뜻을 알아 얻었나이다”고 물러 나왔다.

국사는 다시 청중남자로 소묘자재(造妙自在)하다가 춘천 청명사에 발길을 멈추고 문수보살 앞에 참회 발원하고 17일 동안 선정을 닦는데, 어떤 보살이 공명을 놓아 천지가 여명(黎明)하면서 오른팔을 펴 스님의 정수리를 만지며 “장하도다. 게으름 없는 너의 수행이여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서 <능엄경>을 내어 주면서 “여기에 심성(心性)의 본방(本方)을 찾는 지름길(捷路)이 있다”고 사라졌다.

선정에서 깨어난 국사는 <능엄경>을 탐독하다, “이 우주만유가 지수화풍공견식(地水火風空見識) 일곱 가지 원인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7대 원인이 본래 자연(自然)이 아니고 인연(因緣)이며 본래 여래장(如來藏)의 묘진여성(妙眞如性)이다”고 한 교지(敎旨)를 보고 크게 깨우쳤다.

### 능엄경 탐독 妙眞如性 이치 터득

### 보경사 증창조...떡차 처음 보급

는다(橋流水不流).”

국사께서는 동요하는 기색도 없이 “흐르는 편으로 보면 천지만물이 흐르지 않는 것이 없고 흐르지 않는 편으로 보면 물도 흐르지 않습니다. 흐르는 것은 속제(俗諦)의 도리이고 흐르지 않는 것은 진제(眞諦)의 도리입니다.”

국사께서 불암사에 머문 지도 여러 해, 스님은 옷 한 벌, 바리때 한 켤레를 써서 걸방에 넣고 떡 높은 선지식을 찾아서 산전을 누볐다.

대해 중고 선사(活句禪)로서 수선사를 개창하여 많은 남자를 제법하고 계신 지능 선사를 찾았다. “어서 오시구려 반갑기 한량 없구로. 그대는 법신(法身)과 색신(色身)이 하나인가 둘인가.”

국사는 말문이 막혔다. 대답이 없자 지능 스님께서 “그대는 무주(無住) : 일체 집착이 없는 것으로 체(體)를 삼고, 무념(無念) : 마음을 떠 버리는 것”으로 종(宗)을 삼고, 무상(無相) : 나와 남, 주관(主觀)과 객관(客觀)의 분별이 없는 것으로 용(用)을 삼아서 공부하시게.”

이에 국사는 “무명실성(無明實性) 곧

법신과 색신이 둘이 아니요, 나 자신과 우주만유(宇宙萬有)가 7대 원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묘진여성이라는 이치를 깨달았던 것이다.

### 영원한 향기(永香)

妙眞如性(묘명진성)

淸淨眞性(청정진성)

我爲大法王(아위대법왕)

於法悉自在(어법실자재)

만유(萬有) 세계의 그 자체는 소소영명(昭昭靈明)하여 어느 곳 어디서나 항상 어둡지 않고,

인연에 속한 것도 아니요 자연도 아니며 본래 모든 생령이 다 갖추어 있는 여래장이다.

내가 큰 법왕이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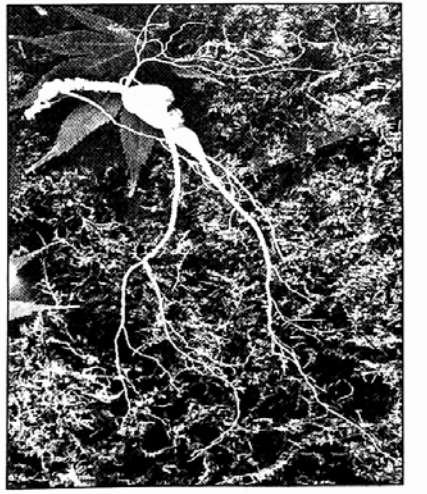
모든 법에 다 자재하다.

원진 국사께서 열여 보이신 묘진여성의 능엄선(楞嚴禪)은 오늘날까지도 중생들에게 심유(心流)가 되고 있다.

元 · 氣 · 回 · 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 蔘 長 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형준비에 지친 수행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蔘 12가지 中蔘 12가지 下蔘 12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산삼의 산삼은 上蔘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심마리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부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救道와 佛功으로 普行하시는 스님 지친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몸게 精進하시우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오니 부담 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회의 서울 「장뇌산삼」 사업부

#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 延年不老 仙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포'는 가시나뭇을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뭇만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학박사)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 447-2004